

고전(古典)은 옛 고(古)자에 법 전(典)자를 쓰며, 오랜 시대를 거치며 많은 사람에게 널리 가치를 인정받은 작품을 일컫는 말이다. 괴테의 작품<파우스트>은 작품이 담고 있는 인간상에 대한 고찰은 현대까지 연구 대상이 될 정도로 대표적인 독일 희곡의 고전 작품으로 손꼽히며, 문학사, 철학사의 한 획을 그은 대작이라고 할 수 있다. 양정웅 연출의 <파우스트>는 그러한 동 제목의 원작에 뿌리를 둔 작품으로, 고전의 원작을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양정웅 연출이 재해석한 <파우스트>는 어떠한지 이해하려 노력했고, 이러한 관점의 연장선상에서, 무대의 연출을 주목하여 관람하였다.

해당 연극은 제1부의 내용만을 다루며, 원작이 그렇듯 메피스토펠레스(이하 '메피스토')와 파우스트, 두 인물이 극을 끌어간다. 처음 천사들과 메피스토가 등장하는 회의 장면에서 명암 대비와 색채대비를 활용한 것을 통해 극을 관람하며 특히 그러한 대비에 집중하였다. 파우스트와 메피스토가 처음 조우하였을 때는 흑백의 대조가 뚜렷했으나, 파우스트가 메피스토와 계약하고 난 시점부터 파우스트의 의상 색이 변화한다. 처음에는 재킷 안 셔츠가 검은색이 되었으나, 발푸르기스의 밤 속 파우스트는 강렬한 적색과 흑색의 옷을 입고 나타난다. 의상으로 점점 메피스토와 분간이 어려울 정도로 비슷한 색채를 띠는 파우스트의 모습에, 점점 악에 동화되어 가는 모습을 그려낸 것으로 이해할 수 있었다.

극 중반부부터 활용된 미디어월 또한 인상적이었다. 양정웅 연출은 그 이전부터 이러한 미디어월 활용에 있어 평창올림픽부터 화려한 이력을 자랑하는 작가이기도 하다. 이번 연극에서도 그는 배경에 극 중 인물을 일인칭 시점의 영상으로 작업하여 삽입하고, 무대의 배우들과 소통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장면을 주로 이끌어가는 그레첸을 무대에 등장시킨 것이 아니라, 화면에 등장시켰던 점이 인상적이었다. 일인칭 시점의 영상이기 때문에 단순히 어떤 이미지를 전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관객을 극 중 인물로 편입시켜 몰입도를 더 올렸다. 그러한 영상들 외에도 배경이나 여타 음향은 기존의 연극보다 더 영화적으로 만든 요소였다.

또, 중간중간의 농담식 대사들은 관객들에게 <파우스트>라는 작품을 최대한 친근하게 풀어내어 보이려고 한 노력으로 보였다. 극장의 규모로 봤을 때는 소위 '시체관극'을 해야 할 것 같은 분위기라, 처음에 웃어도 되는 건지 주저함이 있었는데, 다른 관객분들이 웃는 것을 듣고 마음 편하게 웃고 반응할 수 있었다. 결국 파우스트를 제대로 읽어보지 않았음에도 연극이 끝나고 대강의 줄거리를 이해할 수 있었던 것은 양 연출이 '원작의 맛'을 그대로 전달하려는 의도를 잘 살렸기 때문이라고 느꼈지만, 동시에 그로부터 온 아쉬움이 있었다.

고전의 매력은 그 원본으로만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고전은 현대까지 회자하면서 다양한 변형을 통해 재해석되고, 변형된다. 특히 이는 소설에서 연극, 소설에서 영화 등, 장르를 넘나들 때 가장 뚜렷하게 드러난다. 이러한 작품들은 플롯 트위스트를 삽입하거나, 작품의 배경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기도, 주인공의 성정을 바꾸기도, 혹은 다채로운 무대 연출로 관객들에게 호

소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관객들은 새로운 작품, 연출가만의 고전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연극의 연출에 아쉬움이 남았다. 동 작품을 바탕으로 한 국립극단의 <파우스트>는 여성 파우스트를 내세워 새로운 <파우스트>를 선보였고, BBC의 설록은 현대적 배경으로 소화해 내 고전 설록을 현대판 설록으로 변형해 냈다. 하지만 양정웅 연출이 이 작품은 지나치게 원작에 호소하기만 했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는 작품을 현대적으로 보여주려고 했다지만, 관객의 입장에서는 사실상 미디어월을 제외하고는 그렇게 느낄 만한 요소가 많지 않았다. 양정웅 연출이 이전에 작업했던 <로미오와 줄리엣>은 성별을 바꾸어 현대의 적극적인 여성상을 묘사하는 식으로 변형이 가해졌던 것을 알았기에, 특히나 현재까지 많은 해석과 변형이 이뤄졌던 <파우스트>인 만큼, 그런 요소들을 더 기대하였었다. 연출가가 전달하고자 하는 바를 위해 차별화를 조금 더 두었다면, 원작 그 이상의 의미를 관객들에게 전달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다.

또, 무대의 활용에서도 아쉬운 점이 있었다. LG 아트센터는 3층으로 이루어져 있고, 단층이 아니기 때문에 좌석에 따라 시야가 한정되기 마련이다. 그리고 대학로 연극처럼 관객들과 상호작용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규모와 구조가 아니라는 점도 무대를 구성하는 데 있어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다. 무대 밖의 관객석까지 활용하는 것은 물론 연극이 가진 하나의 매력이지만, 장소적 특성으로 인해 그 부분이 오히려 단점이 됐다. 3층에서 관람하였을 때, 관객석 통로로 메피스토와 파우스트가 활보하던 모습이 잘 보이지 않았다. 가장 마지막 퇴장 장면에서 파우스트에게 손을 내민 메피스토의 장면에서 메피스토의 모습도 보이지 않았던 터라, 극장의 특성을 고려하지 못한 점이 가장 아쉽다.

미디어월이라는 새로운 요소를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은 좋았지만 원작에 지나치게 의존한 것이 아쉬웠던 이번 연극 <파우스트> 작품을 보고 나오며 이 한마디가 생각났다. 연출은 노력하는 한 방황하는 법이다.